

# 한중일 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실태\*

박 양 순\*\*

yangsun2@hanmail.net

## 〈 目 次 〉

- |          |             |
|----------|-------------|
| 1. 들어가기  | 4. turn의 빈도 |
| 2. 연구 배경 | 5. turn의 유형 |
| 3. 분석 방법 | 6. 마무리      |

Key Words : 모어상황(Native Situations), 비모어상황(Non-Native Situations), 상호작용(interaction), 말화권(turn)

## 1. 들어가기

한중일 간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관점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한중일 3국의 자국 모어화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인과 중국인, 한국인과 일본인 등 모어를 달리하는 자가 특정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의 비교이다. 이때 사용언어가 어느 한쪽의 모어인 경우 모어화자와 학습자라는 언어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며 그 저변에는 양국의 문화적 접촉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될 수 있다. 즉 비모어화자가 모어가 아닌 언어로 행하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어상황과 비모어상황을 상호 총체적으로 비교하여 (1)대화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1-A00114).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참가자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상호작용 실태를 고찰하고 (2)이를 통해 한중일 3국 간의 성공적인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 2. 연구 배경

### 2.1 상호작용의 이론적 배경

상호작용 연구에는 맞장구 및 tum에 관한 연구가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된다. 맞장구 연구는 미즈타니(水谷信子1983, 1984, 1988, 1993) 등에서는 맞장구의 사용빈도와 종류 및 맞장구가 사용되는 위치 등에 관해 연구되어 왔다. 맞장구의 정의에 대해서는 메이나드(メイナード1993)에 토대를 둔 강창임(2008)의 의견에 따르면 ‘화자가 발화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 혹은 화자의 발화가 종료된 직후에 발화권을 갖지 않은 청자가 보내는 짧은 표현’<sup>1)</sup>이며, 또한 맞장구의 기능은 계속의 기능, 이해의 기능, 동의의 표시, 감정의 표출(놀람, 기쁨, 슬픔, 불신, 동정, 겸손, 위로 등의 관심의 표출)로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있는 담화의 경우 이들 양자간의 상호작용으로 대화는 완성된다. 대화에 있어서 참가자 일방에서 다른 참가자에게로 발화가 전환되는 것을 tum(발화권 또는 발화순번)이라고 하며 이 tum을 취하려고 하는 참가자의 행동을 tum-taking라고 한다.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언제 tum이 일어나는가’, ‘tum-taking은 어떠한 양상(정보요구, 협조적 등)으로 나타나는가’에 주목해왔다. 그 중에서도 tum과 맞장구의 접점에서 스기토(杉戸清樹1987)는 실질적인 발화의 tum을 인정하는 주장이 우세하였으나 근년 모든 발화를 tum으로 인정하고 성격상 주류tum과 비주류tum으로 인정하는 의견(金志宣 2000, 金珍娥2004)이 대두되었다. 특히 김진아(金珍娥2004)에서는 발화권(turn)의 존재 양식의 관점에서 맞장구를 고찰하여, 맞장구가 담화전개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tum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준하여 본고에서는 맞장구를 tum으로 인정하는 견지를 취한다.

1) 강창임(2008) 「한국어화자와 일본어화자의 맞장구 사용양상」 『일본어의 언어표현과 커뮤니케이션 연구』 한일커뮤니케이션 연구회 제이앤씨 p.418

또한 본고에서는 구로누미(黒沼祐佳1996)를 참고로 tum의 유형2) 을 5.1절과 같이 의뢰의 당사자와 그 상대방의 정보제공 및 정보요구의 기능, 맞장구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tum수의 양적 연구과 tum의 담화분석적 접근이 다수를 이루나 본고에서는 한중일 언어행동의 상호 비교 및 화제부에 따른 분석에 원용하고자 한다.

## 2.2 데이터의 성격

본고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중점을 둔 인터뷰 데이터이다.

역할	인터뷰 조사시 수행해야 할 사항
대학생	학생은 미국 대학탐방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한다.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지원서(탐방계획서), 신원보증을 위한 학과장 교수님의 동의서이며, 별도로 학과장님의 추천서가 있으면 심사에 반영한다는 규정이 있다. 동의서는 학과장님의 개인정보(나이, 수입 등 11개 항목)를 기재해야 하고 신원 보증인을 수락한다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학생은 며칠 전에 오늘 연구실을 방문하기로 약속하고, 오늘 학과장님 연구실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찾아온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동의서 기입과 서명을 받고 추천서를 부탁한다. 이때 교수의 승낙 여부 등은 학생에게 일체 알리지 않으며, 다만 교수가 어떠한 내용이든 부탁을 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이유를 들어 거절하도록 미리 말해 둔다.
학과장님 (교수)	조사에서 교수는 찾아온 학생의 행동에 대해 자연스럽게 응대하는 자세를 취한다. 다만 자기소개 및 대학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할 경우 질문을 하고 학생의 응대를 기다린다. 학생의 설명을 청취한 뒤 칭찬을 하고 동의서작성에 수락한다. 동의서의 개인정보에 대해 응답을 하나 8번 주거형태의 항목에서 “그런 것도 필요한가?”라고 한 차례 불만을 표명하며 학생의 대응을 기다린다. 그 후 학생이 2차적으로 추천서를 의뢰해 오면 기한축박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학생의 해명을 듣는다. 이어서 추천서를 써줄 것을 승낙하고 다음날 받으러 오도록 유도한 뒤 유학생환영회 모임의 준비를 도와 줄 것을 요청하며, 학생의 거절사유를 듣고 자연스럽게 학생이 퇴실을 하면 조사는 종료된다.

인터뷰 조사는 각각 한중일 3국의 현지에서 톨플레이 형식으로 모어화자와

2) 黒沼祐佳(1996) 「会話におけるturn-takingと情報共有のイニシアティブの関係」 『筑波大学応用言語学研究』3 筑波大学 p.107

비모어화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9분~16분으로 10분 전후에 해당하나 본고에서는 제시된 언어행동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간의 장단은 일절 고려하지 않았다.

### 2.3 대화 참가자

조사는 한중일 3국 현지에서 각각 실시하여 모두 98명을 조사하여 그 중 93명의 유효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대학생 역할자는 조사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과하여 개인번호로 삼았으며 그림과 표에서는 조사의 9그룹을 KK(한국어 모어화자), CC(중국어 모어화자), JJ(일본어 모어화자) 등 약칭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시기 및 조사에서의 대화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조사지역(조사시기)	대화 참가자
중국(2009년4월)	학과장님 역할 : 북경외국어대학 강사 1명 대학생 역할 : 북경외국어대학 중국인 재학생(CC) 11명 -남자3명/여자8명 북경외국어대학 한국인 유학생(CK) 10명 -남자2명/여자8명 북경외국어대학 일본인 유학생(CJ) 10명 -남자5명/여자5명
한국(2009년5, 6월)	학과장님 역할 : 중앙대학교 강사 1명 대학생 역할 : 중앙대학교 한국인 재학생(KK) 10명 -남자5명/여자5명 중앙대학교 중국인 유학생(KC) 11명 -남자5명/여자6명 중앙대학교 및 서울 거주 일본인 유학생(KJ) 10명 -남자4명/여자6명
일본(2009년10월)	학과장님 역할 :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강사 1명 대학생 역할 : 도쿄대학 일본인 재학생(JJ) 10명 -남자6명/여자4명 도쿄대학 중국인 유학생(JC) 11명 -남자3명/여자8명 도쿄대학 한국인 유학생(JK) 10명 -남자5명/여자5명

## 3. 분석 방법

### 3.1 turn의 분석 방법

본 데이터에서는 학생과 교수 2인의 발화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일방의 발화에서 상대방의 발화로 바뀌는 경우는 모두 turn으로 인정하였다. 특히 맞장구

의 “응” 또는 웃음으로 수궁하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turn의 빈도를 계량적으로 비교한다.
- (2)화단(話段) 및 화제부(話題部)에 따른 turn의 양상을 비교한다.
- (3)turn의 양상은 한중일 또는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 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비교한다.

### 3.2 담화 전개상 구분

본 데이터에서는 의뢰를 주목적으로 하나, 그 외에도 수행해야 할 언어행동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음과 같이 18가지 화단(話段)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공통 화제로 나누어 볼 때 8가지 화제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하나의 발화에 연속적으로 여러 화단에 걸쳐서 언급하는 경우는 turn이 일어나기 직전의 화단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아래의 화단 전개는 시간적 흐름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며, 구체적인 발화 내용은 일본 조사에서 한국인 유학생 JK02의 데이터를 참고 바란다.

화제부(話題部)		화단(話段)
개시부		1. 담화 개시
수행부	의뢰부1	2. (학생의) 방문 이유 설명 3. (학생의) 동의서 작성 의뢰 4. (교수의) 동의서 작성 승낙 5. (학생의) 동의서에 수반되는 보증책임 설명
	칭찬부	6. (교수의) 칭찬 7. (학생의) 칭찬에 대한 반응
	질문부	8. (학생의) 동의서 작성 요령 설명 9. (학생과 교수의)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과 대답 10. (교수의) 동의서 질문항목 중 주거형태를 물을 때 불만 표명 11. (학생의) 불만 표명에 대한 대응
	의뢰부2	12. (학생의) 추천서 의뢰 13. (교수의) 추천서 의뢰 수락
	해명부	14. (교수의) 기간 임박에 대한 해명 요구 15. (학생의) 해명
	거절부	16. (교수의) 행사 준비를 위한 도움 요청

	17. (학생의) 거절
종결부	18. 답화 마무리

(JK02 : 본국에서의 학습기간 6년/체재기간 4년 1개월)-개시부~칭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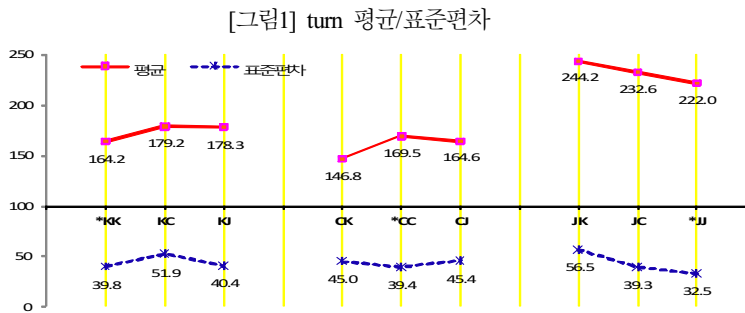
<p>학생1: (トントン)</p> <p>교수2: はい。</p> <p>학생3: こんにちは。</p> <p>교수4: こんにちは。</p> <p>학생5: と、メールでは、ご連絡いたしましたけど、あの、あの、総合文化研究科の博士課程1年の〇〇〇と申します。</p> <p>교수6: あ~~~~。〇さんね。はいはいはいはい。メール見ました。</p> <p>학생7: よろしくお願ひします。</p> <p>교수8: 座ってください。</p> <p>학생9: はい、失礼します。忙しいところ時間割いていただいて、</p> <p>교수10: いえいえいえ。</p> <p>학생11: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개시부]</p> <p>교수12: えっと、具体的にどんな内容でしたっけ?</p> <p>학생13: そうですね..</p> <p>교수14: はい。</p> <p>학생15: えっと、今回ですね、あの、アメリカンエアラインという、あの会社でですね、あの、アメリカの大学を、ちょっと10日間くらい、あの訪問、あの10日間くらいの訪問を支援してくれるプログラムがありまして、</p> <p>교수16: うん。</p> <p>학생17: そこに是非あの支援して行きたいなと思ひまして</p> <p>교수18: うん。</p> <p>학생19: で、そこに先生の同意書がちょっと必要でして</p> <p>교수20: うん。</p> <p>학생21: あの、忙しいところすいませんが、</p> <p>교수22: うん。</p> <p>학생23: 是非先生にお願いしたいということで、</p> <p>교수24: うん。</p> <p>학생25: 参りました。</p>	<p>교수26: で、そのプログラムあるんだけど..</p> <p>학생27: はい。</p> <p>교수28: んと、どういった感じで参加したいと思ってるんですか?</p> <p>학생29: そうですね、</p> <p>교수30: うん。</p> <p>학생31: えっと、10日間という短いちょっと期間ですが</p> <p>교수32: うん。</p> <p>학생33: えっと、私、あの一、アメリカに、まだ行ったことがないので、</p> <p>교수34: うん。</p> <p>학생35: と、是非アメリカの大学の文化を少しでも体験して、</p> <p>교수36: うん。</p> <p>학생37: まあ、見聞を広めて..</p> <p>교수38: おおお。そうですか(笑)</p> <p>학생39: あと、研究にちょっとつなげたらいいなという、思いで、是非..</p> <p>교수40: あ、なるほどね。</p> <p>학생41: はい、支援してみたいと思ひます。</p> <p>교수42: あ、そっか。日本でも大変だと思うのに、アメリカにも?</p> <p>학생43: そうですね。 [의뢰부]</p> <p>교수44:すごいじゃないですか。</p> <p>학생45: いえいえいえ。でも是非東洋じゃなくて、西洋の方にも行って、</p> <p>교수46: うん。</p> <p>학생47: きょう..見聞を広げたいと思ひます。</p> <p>교수48:すごいですね。いい、いいことですよ。</p> <p>학생49: 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칭찬부]</p> <p>교수50: じゃあ、まあ一あの一、なんか私に出来ることあるんですか?</p> <p>학생51: はい。えと..まず &lt;이하 생략&gt;</p>
--	---

## 4. turn의 빈도

### 4.1 전체 turn의 빈도

한중일 3국에서 각각 모어화자 및 비모어화자의 9그룹별(2.3절 참고)로 나누어 전체 turn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그림1]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turn의 평균은 중국 조사<한국 조사<일본 조사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모어화자 간의 대화(KK, CC, JJ)가 비모어화자 간의 대화보다 표준편차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모어화자 간의 상호작용의 경우가 쌍방간 언어행동의 예측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준다.



한편 한국어 모어화자(KK)와 일본어 모어화자(JJ)는 평균 turn수가 비모어화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중국어 모어화자(CC)는 평균 turn수가 비모어화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일본 조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교수 역할자와 빈번히 상호작용하며 언어행동을 수행하는 데에 비해 중국에서는 언어행동 수행이 소극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 역할에 참가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 조사와 중국 조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평균 체재기간은 0.5년 이하이며, 본국에서의 외국어 학습기간은 0.4년 이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 조사의 경우는 평균 일본 체재기간이 3.2년이며, 본국에서의 일본어 학습기간은 4.0년으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한중일 3국 조사의 외국인 유학생 모두가 제시된 언어행동을 완수하였으며 한국 조사와

중국 조사의 상호작용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반드시 체제기간과 학습기간이 이문화케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 각 개인별의 turn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학습기간 및 체류기간의 장단과 turn수의 상관관계가 미약하나 일본조사에서는 학습기간 및 체류기간이 긴 학생일수록 각 그룹의 평균값에 가까운 turn의 빈도수를 보였다. 이처럼 외국인이 외국어로 언어행동을 수행하는 경우 체제기간 및 학습기간 등 모어화자의 언어행동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이문화커뮤니케이션이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4.2 화제부별 turn의 빈도

한중일 조사에서 화제부 평균 turn수를 9그룹별로 [표1]에 제시하였다. 또한 이 중 한중일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모어화자의 화제별 turn수를 [그림2]에 나타내었다.

### 4.2.1 화제부별 모어화자의 상호작용

우선 [그림2]의 모어화자의 상호작용을 비교해 보면 한국과 중국은 화제별로 비슷한 양상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의뢰부1과 질문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질문부보다 의뢰부1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로 보아 한국과 중국에서는 의뢰행동에 관한 언급이 많이 이루어지며 개인 정보에 대한 질문부에서는 상호작용이 간결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조사에서는 의뢰부1보다 질문부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며 거절부와 종결부의 상호작용이 한국과 중국보다 빈번히 교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의뢰부1은 한국, 중국과 같은 평균 turn수를 보이나 질문부에서는 한국, 중국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통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언어행동이 수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중일 조사에서의 교수 역할자의 작용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기준으로 비모어화자의 언어행동을 비교하고자 한다.



4.2.2 화제부별 비모어화자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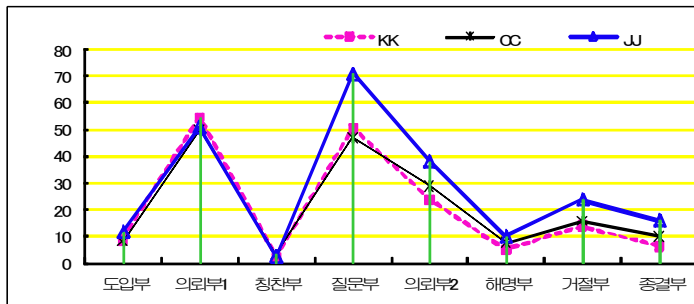
[표1]의 한국 조사와 중국 조사에서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의 화제별 turn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의뢰부1과 질문부이다. 즉 모어화자 간 상호작용에서는 질문부보다 의뢰부1의 turn수가 많은 데에 비해 비모어화자의 경우는 의뢰부1의 비율이 낮고 질문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국 조사에서는 한국, 일본 조사에 비해 상호작용이 전체적으로 적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1] 화제부별 평균 turn수

\* (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도입부	의뢰부1	칭찬부	질문부	의뢰부2	해명부	거절부	종결부	합계
KK	8.6 (4.6)	54.3 (21.2)	2.1 (1)	50.4 (9.8)	23.7 (10.2)	4.8 (3.3)	14.0 (4.5)	6.3 (4.1)	164.2 (39.8)
KC	9.2 (6.8)	43.2 (17.3)	3.8 (4.6)	70.3 (19.8)	24.8 (9.2)	5.5 (2.2)	16.4 (7.1)	6.0 (3.6)	179.1 (51.8)
KJ	7.8 (2.3)	43.8 (18.1)	6.5 (4.6)	69.8 (16.2)	21.7 (11.3)	6.6 (3.5)	15.1 (3.6)	7.0 (2.5)	178.3 (40.4)
CK	7.6 (1.6)	34.5 (10)	2.2 (1.1)	50.5 (15)	25.9 (14.5)	6.3 (3.8)	13.1 (7.5)	6.7 (2.6)	146.8 (45)
CC	8.0 (1.6)	49.5 (17.4)	3.1 (1.4)	46.9 (9)	28.6 (7.7)	7.6 (6.5)	15.6 (5.4)	10.0 (5.3)	169.5 (39.4)
CJ	7.9 (2.6)	38.5 (11)	3.1 (2.1)	55.6 (12.1)	26.8 (13.3)	6.8 (4.7)	17.7 (10.1)	8.2 (1.9)	164.6 (45.4)
JK	10.6 (4.6)	53.5 (21.5)	8.7 (10.1)	79.0 (18.8)	43.2 (12.3)	8.8 (6.1)	27.8 (8.9)	12.6 (4.5)	244.2 (56.5)
JC	14.0 (4.3)	44.5 (14.5)	6.1 (6)	74.7 (19.7)	39.5 (14.5)	11.4 (6)	29.9 (13.2)	12.5 (4.1)	232.6 (39.3)
JJ	11.4 (2.8)	50.8 (16.8)	2.4 (3.1)	70.7 (15.5)	37.8 (10.3)	9.7 (7.8)	23.4 (8.4)	15.8 (6.8)	222.0 (32.5)

[그림2] 모어화자의 화제부별 turn의 빈도



이에 일본 조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조사에서와는 달리 모어화자(JJ)의 경우 질문부가 의뢰부1보다 tum의 빈도 높게 나타나며, 비모어화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비모어화자는 의뢰부1에서 중국인 유학생(JC)는 모어화자보다 상호작용이 작으나 한국인 유학생(JK)는 모어화자보다 상호작용이 빈번하였으나 표준편차가 컸다. 질문부에서는 모어화자에 비해 비모어화자는 상호작용의 평균 tum수가 많고 표준편차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어화자는 종결부에서 상호작용이 여러 차례 일어나지만 비모어화자는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한중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한국과 중국에서는 본래 목적인 의뢰를 위한 상호작용에 중심을 두는 반면 일본에서는 개인정보를 질문하고 대답하는 부분에서 상호작용이 빈번히 일어났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는 의뢰에 대한 상호작용에서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의 차이가 크며, 일본에서는 체제기간 및 학습기간이 긴 유학생이 많아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 5. tum의 유형

### 5.1 tum의 유형 분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대학생과 교수 역할자의 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tum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1) 학생의 정보제공(a-1), 학생의 정보요구(a-2)
- (2) 교수의 정보제공(b-1), 교수의 정보요구(b-2)
- (3) 양측 대화 참가자의 맞장구에 해당하는 발화(C)

한중일 3국의 9그룹별로 각 tum의 유형별 빈도를 [표2]에 제시하고 이 중 모어화자의 tum의 유형별 빈도는 [그림3]에 나타내었다. 표와 그림에는 맞장구를 교수와 학생으로 구분하였으나 분석에서는 구분하지 않았다.

5.1.1 tum의 유형별 모어화자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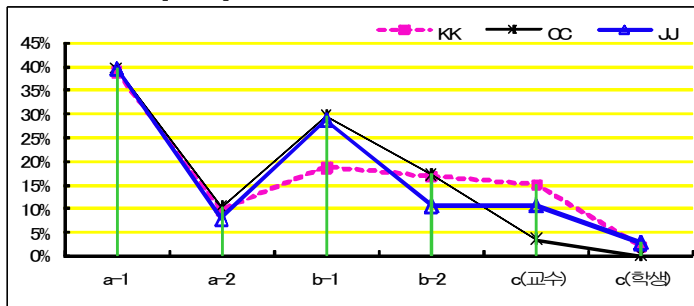
우선 [그림3]의 모어화자의 tum의 유형을 살펴보면, 학생의 정보제공

[표2] tum의 유형별 빈도

\*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을 나타냄

	a-1	a-2	b-1	b-2	c(교수)	c(학생)	합계
KK	636 (38.9%)	156 (9.6%)	304 (18.6%)	272 (16.7%)	244 (14.9%)	30 (1.8%)	1633 (100%)
KC	729 (37.8%)	222 (11.5%)	408 (21.2%)	344 (17.8%)	233 (12.1%)	35 (1.8%)	1928 (100%)
KJ	673 (39.2%)	175 (10.2%)	363 (21.1%)	284 (16.5%)	244 (14.2%)	44 (2.6%)	1719 (100%)
CK	580 (39.6%)	149 (10.2%)	432 (29.5%)	251 (17.1%)	51 (3.5%)	2 (0.1%)	1465 (100%)
CC	763 (40.9%)	170 (9.1%)	472 (25.3%)	247 (13.2%)	212 (11.4%)	1 (0.1%)	1865 (100%)
CJ	652 (39.6%)	172 (10.4%)	487 (29.6%)	275 (16.7%)	60 (3.6%)	1 (0.1%)	1647 (100%)
JK	965 (39.6%)	191 (7.8%)	698 (28.6%)	257 (10.5%)	258 (10.6%)	68 (2.8%)	2437 (100%)
JC	1071 (41.8%)	188 (7.3%)	841 (32.8%)	229 (8.9%)	211 (8.2%)	25 (1%)	2565 (100%)
JJ	865 (38.9%)	204 (9.2%)	677 (30.5%)	220 (9.9%)	214 (9.6%)	43 (1.9%)	2223 (100%)

[그림3] 모어화자의 tum의 유형별 빈도



(a-1)과 학생의 정보요구(a-2)는 일정하나 이에 대한 교수 역할자의 tum의 유형에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 조사에서는 교수의 정보제공(b-1)과 교수의 정보요구(b-1), 교수의 맞장구(c)가 비슷한 출현빈도를 보이는 데에 비해 중국 조사에서는 교수의 맞장구(c)가 매우 낮으며 일본 조사에서는 교수의 정보요구(b-2)와 교수의 맞장구(c)가 같은 정도의 출현빈도를 보였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중국 조사의 결과로 교수 역할자는 학생에 향해 언급하거나 질문하는 상호작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학생의 언급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1.2 tum의 유형별 비모어화자의 상호작용

[표2]의 한국 조사와 일본 조사에서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의 tum의 유형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나, 중국 조사에서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에 대한 교수 역할자의 tum의 유형은 차이를 보였다. 모어화자(CC)에 대해서는 맞장구(c)의 빈도가 높으나 비모어화자(CK,CJ)에 대해서는 맞장구의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 조사에서 비모어화자는 tum을 주도적으로 자신의 영역에 두고 대화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맞장구를 행사하지 못하고 교수의 정보제공(b-1) 또는 교수의 정보요구(b-2)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 5.2 개인별 tum의 유형-의뢰부1

의뢰부1은 담화내용으로 볼 때 학생이 방문한 목적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동의서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여기에서는 학생의 정보제공(a-1)과 교수의 맞장구(c)가 높은 빈도를 보이는 화제부였다. 한중일 조사 지별로 개인의 전체 tum수에서 의뢰부1의 유형별 빈도 형식으로 [그림4], [그림5], [그림6]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는 학생의 정보제공(a-1)에 대한 교수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교수의 정보제공(b-1), 교수의 정보요구(b-2), 맞장구(C)를 제시하였다. 이때 교수의 정보제공(b-1)과 교수의 정보요구(b-2)는 세로막대형으로, 학생의 정보제공(a-1)와 맞장구(C)는 꺾은선형으로 나타내었다. 개인의 나열순서는 의뢰부1의 tum수가 많은 사람순으로 나열하였다.

우선 [그림4~6]의 한중일 모두 학생의 정보제공(a-1)과 맞장구(C)의 꺾은선에 주목하면 학생의 정보제공(a-1)이 높으면 맞장구(C)의 빈도도 높아지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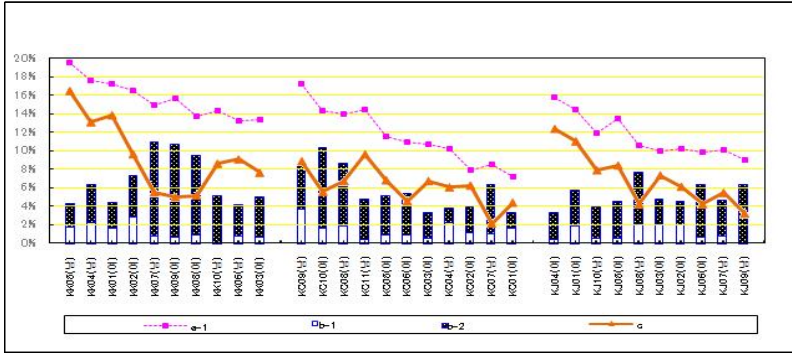
이 있다. 특히 한국 조사의 모어화자(KK)의 경우, 전체 담화의 turn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학생의 정보제공(a-1)을 행사하며 이에 교수 역할자는 맞장구를 보이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모어화자 전체가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언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교수 역할자의 발언이 증가하며 그 중에서도 교수의 정보요구(b-2)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중국조사의 모어화자(CC)와 일본조사 전반에서 나타나는 경향이였다. 다만 중국 조사의 비모어화자(CK, CJ)에게서는 이러한 경향이 미약하다. 전체적으로 교수 역할자의 언급이 많으며 학생의 방문목적 및 의뢰내용의 불충분한 점을 교수가 언급하여 학생의 발언을 도와주는 담화전개가 예상된다.

즉, 한중일 모두 학생의 정보제공(a-1)으로 나타나는 학생의 개인적 차원의 언어관리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상대의 맞장구가 유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보제공 또는 정보제공요구가 행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 조사에서는 개인의 언어관리가 수용되는 경우 맞장구(C), 교수의 정보요구(b-2)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교수의 언급(b-1)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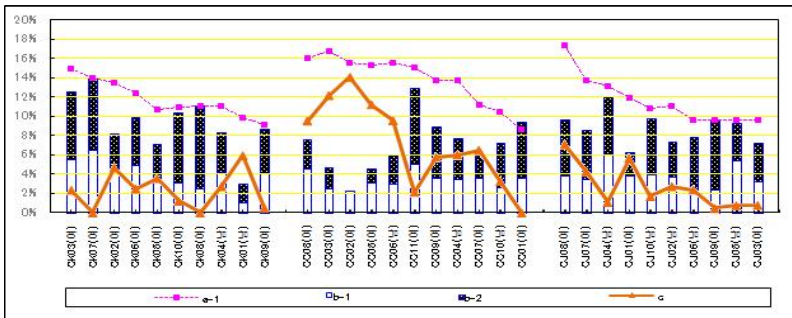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의뢰부1에서 학생이 언급하는 내용과 교수 역할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조사의 경우 모어화자(KK)는 참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설명+지원동기+(꼭 참가하고자 하는) 의지표명에 중점을 두고 발화를 전개하며 이에 교수 역할자는 맞장구로 대응한다. 중국 조사의 경우, 모어화자가 프로그램설명+지원동기+의지표명의 전개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않을 경우, 교수 역할자는 프로그램의 참가 이익, 동의서의 보증책임에 관한 언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비모어화자가 이에 대한 언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수 역할자가 먼저 언급하고 이를 학생이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언급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조사의 경우 모어화자(JJ)는 프로그램설명+동의서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발화를 전개하며 교수 역할자는 지원동기의 정보를 위한 언급 및 언급요구 등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지원동기에 대한 언급이 분명한 학생의 경우 이에 대한 관심표명과 맞장구로 대화를 다이나믹하게 이끌어가는 특징이 보였다. 즉 일본조사의 교수의 정보제공요구(b-2)는 불충분한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학생의 언급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한 언급

이 주류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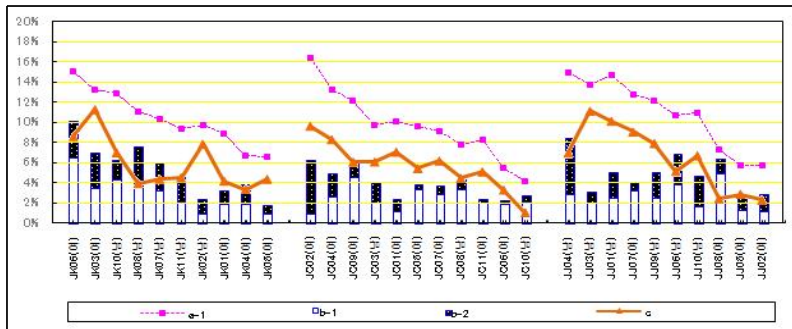
[그림4] 한국 조사에서의 의뢰부1 tum



[그림5] 중국 조사에서의 의뢰부1 tum



[그림6] 일본 조사에서의 의뢰부1 tum



5.3 개인별 turn의 유형-질문부

질문부는 3가지 화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1)동의서 작성 요령(학생의 자필로 써야 한다는 점), (2)11개 항목 개인정보와 관련된 질문, (3)주거형태를 묻는 질문에 대한 불만 표명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학생은 교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기입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이를 위해 학생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설명 또는 교수의 불만을 완화하는 역할이 요구되는 화제부이다.

여기에서는 학생의 정보제공(a-1)을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1)동의서 작성요령설명, (2)교수의 정보요구(b-2)에 대한 응답 또는 교수의 정보제공(b-1)에 대한 확인을 위해 “네” 또는 교수의 정보를 반복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학생의 응답 또는 확인 발화 등과, (3)질문내용 불만 표명에 대한 대응(이유설명, 사죄 등) 또는 “실례입니다만” 등 질문하기 전 미리 양해를 구하는 학생의 발화로 분류하였다.

다음 [그림7~9]에는 학생의 정보요구(a-2), 교수의 정보제공(b-1)를 꺾은선으로 제시하고 학생의 정보제공(a-1)을 위의 3가지 기능별로 분류하여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언급 예는 한국 조사에서 모어화자 KK06의 발화의 일부를 참고하기 바란다.

(KK06)-질문부의 일부

학생40: 예. 염치 불구 하지만 예.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게 자필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a-1 작성요령)	교수57: ◎◎아파트 (b-1)
교수41: 자필이란 건 학생의 자필? (b-1)	학생58: ◎◎아파트 (a-1 응답/확인/질문관/...)
학생42: 예. 제가 직접 작성을 하고 교수님께 몇 가지 알려주시면.....(a-1 작성요령)	교수59: 101 (b-1)
교수43: 자, 그러면 몇 가지 순서대로 물어보면 되겠구나. (b-2)	학생60: 101호 말씀이십니까? 예. 그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a-2)
학생44: 예.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a-2)	교수61: 나이? 자, 만으로? (b-2)
교수45: 자, 박○○. (b-1)	학생62: 예. (a-1 응답/확인/질문관련 내용)
학생46: 네. 소속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a-2)	교수63: 자, 마흔이네. (b-1)
교수47: △△대학교 xx과로 할까? (b-1)	학생64: 아, 예. 감사합니다. 그 결혼여부에 대해서도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a-2)
학생48: 네. 혹시 좀 주소지가 어떻게 되시는지. (a-2)	교수65: 자, 결혼. 기혼. (b-1)
교수49: 어, 용산구 (b-1)	학생66: 예. 혹시 정말 실례지만, 그 수입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a-2)
학생50: 예 (a-1 응답/확인/질문관련 내용)	교수67: 수입? (b-2)
	학생68: 예. (a-1 응답/확인/질문관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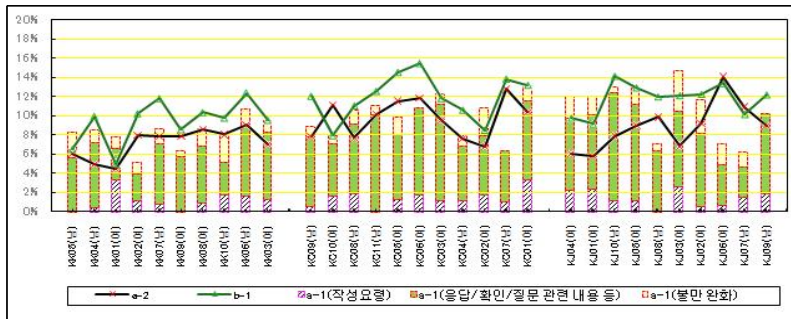
교수51: 원효로1가 (b-1)	교수69: 아, 자, 한 달에 얼마? 이거? (b-2)
학생52: 용산구 원효로 말씀이십니까? (a-2)	학생70: 예, 대략적인 정도로만 말씀해 주셔도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나 (a-1 불만 완화)
교수53: 응, 원효로. (b-1)	교수71: 자, 연봉이면 되나? (b-2)
학생54: 원효로(a-1응답/확인/질문관련 내용)	학생72: 예. (a-1 응답/확인/질문관련 내용)
교수55: 1가. (b-1)	
학생56: 1가. (a-1 응답/확인/질문관련 내용)	

[그림7~9]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조사 모두 학생의 정보요구(a-2)와 교수의 정보제공(b-1)의 빈도가 높다. 여기에 덧붙여 학생의 정보제공(a-1)의 빈도도 이에 상응하는 비율이다. 즉 교수의 정보제공을 구하기 위해 질문형식 외에도 학생의 설명 등을 통해서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조사와 중국 조사, 일본 조사에서 모어화자(KK, CC, JJ)는 대체로 학생의 정보요구(a-2)와 학생의 정보제공(a-1)이 비모어화자에 비해 빈도가 낮게 나타나 상호작용이 간결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의 정보제공(a-1) 중 응답/확인/질문관련 내용의 비율이 낮게 처리되고 있는 점이 이 점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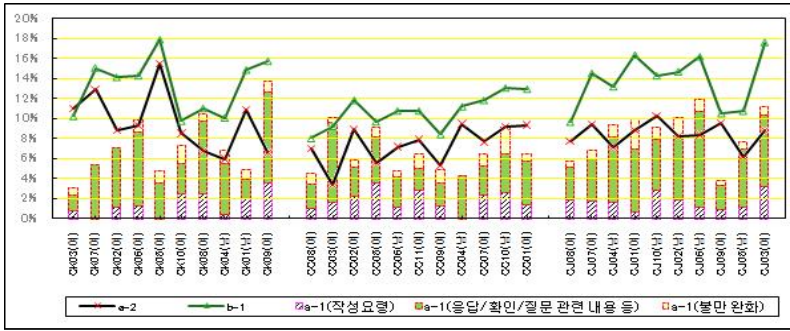
한국 조사와 중국 조사에서는 학생의 정보요구(a-2)가 학생의 정보제공(a-1)의 비율보다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모어화자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였다. 하지만 일본 조사의 경우 학생의 정보요구(a-2)는 학생의 정보제공(a-1)보다 비모어화자인 한국인, 중국인과 모어화자인 일본인 모두 낮게 나타났다.

[그림7] 한국 조사에서의 질문부 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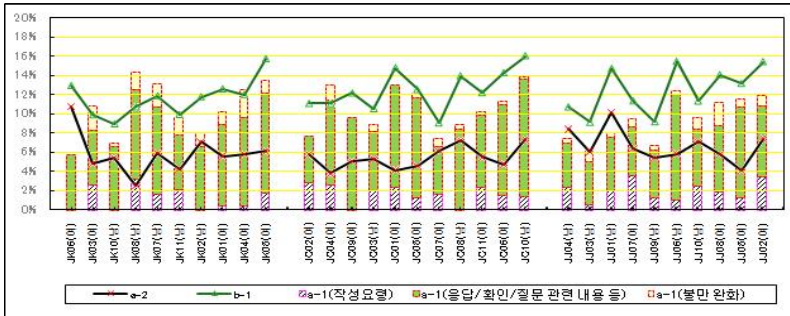




[그림8] 중국 조사에서의 질문부 tum



[그림9] 일본 조사에서의 질문부 tum



한국 조사와 중국 조사에서는 불만완화에 대한 언급 비율은 모어화자에서 비교적 높은 점과 더불어 일본인(KJ, CJ)의 비율이 높았다. 다만 일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조사시에 교수의 질문항목에 대한 불만표명이 누락된 예가 8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6. 마무리

한중일의 3국에서 상대방이 있는 대화 전개 데이터를 통해 상호작용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였다.

- (1) 모어화자 간의 상호작용의 경우는 개인차가 적고 상호작용의 경향이

비슷하여 언어행동의 예견가능성이 높다.

- (2) 상호작용은 한중일 3국 모두 방문목적인 의뢰부와 이를 수행하는 질문부를 중심으로 정보제공, 정보요구, 맞장구가 활발히 일어났으나 한국과 중국은 의뢰부에서, 일본은 질문부에서 더 왕성하게 일어났다.
- (3) turn의 양상은 한중일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의뢰부의 경우, 한국과 일본 조사에서는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 모두 학생의 언급에 대해 교수 역할자는 맞장구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 조사에서는 학생의 언급에 대해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에 대한 대응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중국 거주 외국인이 중국인의 언어행동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4) 이와는 달리 일본 조사의 경우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 모두 질문부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은 개인정보를 묻는 데에 대한 부담감 감소에 역점을 두는 일본인의 언어행동에 대한 지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성공적인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모국어화자의 언어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강창임(2008) 「한국어화자와 일본어화자의 맞장구 사용양상」 『일본어의 언어표현과 커뮤니케이션 연구』 한일커뮤니케이션 연구회(한미경 편저) 제이앤씨 pp.415-434
- 金志宣(2000) 「turn 及びturn-taking カテゴリー化の試み－韓・日の対照会話分析－」 『日本語教育』105号, pp.81-90.
- \_\_\_\_\_ (2002) 「Turn-taking 研究の動向：“turn”と“turn-taking”をめぐる議論を中心に」 『第二言語習得・教育の研究最前線－あすの日本語教育への道しるべ－言語文化と日本語教育』 pp.205-221
- 金珍娥(2004) 「韓国語と日本語のturnの展開から見たあいづち発話」 『朝鮮学報』第191輯 pp.1-28
- 任榮哲·李先敏(1995) 「あいづち行動における価値観の韓日比較」 『世界の日本語教育』第5号国際交流基金日本語国際センター pp.239-251

- 黒沼祐佳(1996) 会話におけるturn-takingと情報共有のイニシアティブの関係 『筑波大学応用言語学研究』3 筑波大学 pp.103-113
- 杉戸清樹(1987) 「発話のうけつき」『談話行動の諸相：座談資料の分析(国立国語研究所報告92)』 pp.68-106
- 水谷信子(1983) 「相槌と応答」『口座日本語の表現3話し言葉の表現』筑摩書房 pp.37-44
- \_\_\_\_\_ (1984) 「日本語教育と話言葉の実態－あいづち分析」『金田一春彦博士古希記念論文集第3巻言語学編』三省堂 pp.261-279
- \_\_\_\_\_ (1988) 「あいづち論」『日本語学』10巻 10号 明治書院 pp.4-11
- \_\_\_\_\_ (1993) 「『共和』から『対話』へ」『日本語学』第12巻 4号 明治書院 pp.4-10
- 村田晶子(2000) 「学習者のあいづちの機能分析:『聞いている』という信号、感情態度の表示、そしてturn-takingに至るまで」『世界の日本語教育』第10号 国際交流基金日本語国際センター pp.241-260
- メイナード・K・泉子(1993) 『会話分析』くろしお出版

접 수 일: 12월 31일  
 심사완료: 1월 26일  
 게재결정: 1월 28일

## &lt;要旨&gt;

## 日韓中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ける相互作用の実態

日韓中の3国の間に行われる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実態を把握するため、大学生が主任教授に依頼および個人情報を聞く場面を想定し、インタビュー調査を行った。調査においては、日韓中の3国で母語話者と非母語話者のデータを収集し、turnの頻度を計量的に分析した。その結果、大学生と主任教授のインタビュー調査では、日韓中ともに母語話者間の会話ではturnの頻度が一定し、言語行動の予見可能性が高かった。大学生の依頼などインタビューで要求される一連の言語行動を遂行することにあたって、主任教授との相互作用がもっとも高い頻繁を示した部分は本来の目的である「依頼の部分」と「個人情報について質問する部分」であった。また、母語話者の場合、質問部分より依頼部分においてもっとも相互作用が活発に行われる傾向があった。さらに、教授の役割人は母語話者に対しては、依頼の内容を聞き、相槌を打つ言語行動が活発に行われていたが、非母語話者に対しては、不十分な情報を補うための質問形式などの種類の相互作用が頻繁に交わされていた。

今回のデータでの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日本での調査において母語話者と同じぐらいの活発な相互作用を見せていたが、特に中国では消極的な相互作用に留まった印象を与えた。これは日本語および日本人の言語行動は相槌、相手への配慮などその特徴が良く知られているが、中国語および中国人の言語行動は外国人がその手がかりにするものがあまりなく把握するにはまだ不十分なところがあることが原因と思われる。このことから、成功的な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導出するにはこのような問題を解決すべき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

